

## 민주,尹정부 규탄 ‘총동원령’... 광주·전남 대거 상경

내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개최  
시·군·구의원 등 1500명 참여  
국정 파탄·검찰 조작수사 비판  
“불참시 불이익” 일부 불멘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최대 1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서울의 남대문 북쪽 KB국민은행 앞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

회’(이하 규탄대회)가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민주당이 서울에서 대규모로 주최하는 첫 야외 집회다.

규탄대회는 시·도당 소개와 인사말, 주요 참석자 사극 발언 등 식전 행사와 최고 위원 발언 등 사전 행사가 이어진다. 4시부터 시작되는 2부 본행사에서는 이대표의 연설 등을 통해 윤정부의 국정 파탄과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규탄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사실상 ‘전국 총동원령’을 내렸다. 각 시·도당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고 ‘드레스 코드’를 파란색 복도

리·모자·외투·장갑 등으로 맞출 것을 공지하는 등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위원회(각 40여명 이상), 그 외 시·도당(시도당별 각 50~100명 이상)에 최소 참석 인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광주 500~600명, 전남 400~500명가량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당의 경우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일정을 안내했으며, 지역위원회별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400~500여명의 추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

고 있다.

광주에선 소속 국회의원, 시·구의원 전원이 서울로 향하고, 전남에선 소방철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도·시·군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규탄대회 당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행사가 있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규탄대회에서 국정 무능에 대한 대국민 보고와 함께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검찰 독재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다만 이례적인 ‘총동원령’에 지역 내 일부 의원과 총선 입지자들은 지역 행사 일정과 규탄대회가 겹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규탄대회에 참석키로 한 한 의원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불참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공지로 ‘강제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일정이 쌓여 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였다. 당 대표를 위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제통합이 우선”

광주전남연구원 용역결과 발표  
상생발전협약으로 단계적 통합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은 점진적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경제통합이 선행과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시·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 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 방안 마련을 위

해 연구용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6년과 2001년 무산된 2차례의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연구 용역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타 초광역협력 상황을 주시하며, 단계적인 통합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1단계로 시·도가 상생발전협약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종 3단계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과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행정통합까지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광역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특례와 조정 교부금 특례를 포함한 재정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27개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광주·전남뿐 아니라 부·울·경,



활짝핀 홍매화 입춘(立春)을 이틀 앞둔 2일 강진 성전 무위사 경내에 홍매화가 활짝 피어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사람들** (496/1000)

**최나과**  
동강대 간호학과 3학년

▶ 관련기사 16편

제주까지 연대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협력권·경제권 구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시·도

통합은 단순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재정 권한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인센티브 보장이 전제조건”이라며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

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키우는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편 최황지 기자

##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